

## 청각학 개론

김규상 외 공저 / 학지사 / 2014. 2. 21



『청각학 개론』은 청각학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청각학을 알리는 기초 서적인 동시에 청각학의 깊이를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의 장들은 한 학기동안 배울 교과목이 될 수 있고, 각각의 내용이 한 권의 책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 책을 집필하는데 보편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 책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살리려고 노력하였으며, 전문 용어를 통일하거나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 학부 또는 처음 청각학을 접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의 집필진은 청각학 관련 교수를 중심으로 이비인후과 및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되었고, 각 장은 집필진의 전문성을 토대로 1장 청각학의 전문성(최철희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2장 청각기관의 해부 및 생리(최철희 교수), 3장 심리음향학적 기초(임덕환 교수,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4장 순음청력검사(한우재 교수,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5장 어음청각검사(이재희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 6장 중이검사(김진숙 교수,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7장 특수청력검사(조수진 교수, 남부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8장 보청기(이경원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 9장 인공와우(이정학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 10장 중추청각처리장애의 평가 및 재활(장현숙 교수,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11장 이명의 평가 및 재활(이호기 박사, 소리이비인후과), 12장 청능재활(방정화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 13장 아동청각학(김진숙 교수), 14장 청각장애 질환(이효정 & 김형종 교수, 한림대학교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 15장 청력보존프로그램(김규상 박사,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은 청각학 분야의 종사자만이 아니라 산업보건 분야에서도 너무 어렵지 않게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산업장의 소음 노출 근로자에 대한 소음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청력정도관리를 통해 그 동안 청력검사자와 의사에게 청각기관 해부 및 생리, 소리의 심리음향학적 기초, 순음청력검사, 어음청각검사, 종이검사, 일부 특수청력검사, 청각장애 질환,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 책은 이에 대한 훌륭한 전문 교재로서 참고할 수 있다.

산업장에서도 소음 노출 근로자에 대해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소음 노출 평가, 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관리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15장에서 우리나라의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과 지침을 세부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청력검사(key program)와 관련하여 청력검사의 평가와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평가 등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구축과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청각학의 지식이 넓게 소통됨으로써 청각학 분야의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많은 독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한국의 청각학 분야 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